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연준 의장 “인플레이션 안 잡혀… 추가 금리 인상 가능”
- WSJ: 보스턴 연은 총재 “물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”
- WSJ: AI 투자 열풍,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 ‘지렛대’
- WSJ: 미국내 데이터센터 간 싸움, 이젠 건설 노조 표심까지 흔든다

[금융]
- YahooFinance: 달러 당분간 강세 지속된다
- Bloomberg: 잭슨 홀 미팅 ‘대박’ 없을 듯
- TheEoconomist: 연방재무장관의 국채 매입 개입… 금리 상승 못 막는 3가지 이유

[중동 전쟁]
- CNBC: 이란 “국제 사회, 미국 제재 맞서야”… 대화 가능성엔 여지 남겨

[오일]
- YahooFinance: 골드만 삭스 “호르무즈 원유 수송 전쟁 전의 3분의 2로 회복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Bloomberg: 중국 전기차 BYD, 수출 호조에 5분기 만에 반등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WSJ: Warsh Says the Fed May Not Be Done Fighting Inflation
연준 의장 “인플레이션 안 잡혀… 추가 금리 인상 가능”

-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오늘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 첫 연설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. 최근 물가 지표가 나아졌지만 안심하긴 이르며, 현재 3.6%인 기준금리도 시장에 충분한 압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.
- 그는 물가가 2% 목표치로 확실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"며 대출·금융 시장의 과열을 지적했다. 다음 달 금리 결정에 대한 구체적 힌트는 아꼈지만, 인플레가 계속되면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.
- 현재 연준 내부는 인플레 원인을 두고 일시적 충격과 강한 수요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. 매파 위원들이 지난달 금리 인상 지지에 표를 던진 가운데, 이번 연설로 연준 내 추가 긴축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.

기사

WSJ: Fed’s Collins Says Rate Increase Warranted If Inflation Disappoints
보스턴 연은 총재 “물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”

- 보스턴 연은의 Susan Collins 총재는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머지않아 통화 정책을 긴축(금리 인상)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.
- 다만 그는 “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는 입장을 덧붙였다.

기사

WSJ: How the AI Investment Craze Is Keeping the Global Economy Afloat
AI 투자 열풍,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 ‘지렛대’

- 무역 갈등과 중동의 지리학적 긴장, 국채 금리 급등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
-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(AI) 투자 열풍이 있다. AI 투자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, 아시아 전역의 수출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.
-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IMF는 AI가 이끄는 수요 엔진이 식거나 힘을 잃을 경우,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.

기사

WSJ: Blue-Collar Jobs Are the New Flashpoint in Data-Center Fight
미국내 데이터센터 간 싸움, 이젠 건설 노조 표심까지 흔든다

-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, 노동조합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.
- 노조 측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거나 늦추려는 정치적 시도가 수천 개에 달하는 건설 관련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- 실제로 버지니아·메릴랜드·워싱턴 D.C. 지역의 배관·배관설비노조(Steamfitters UA Local 602)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.

기사

[금융]

YahooFinance: Dollar heads for weekly gain as Warsh remarks awaited
달러 당분간 강세 지속된다

-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보스턴 연은 총재의 매파적(통화 긴축)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연준이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내 들면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욱 넓어져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대거 쏠리게 된다.
-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,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더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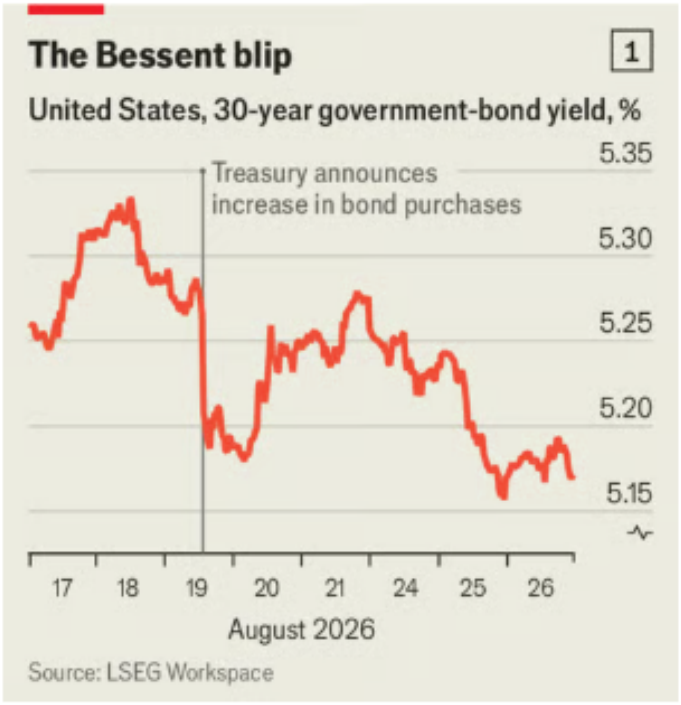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Jackson Hole History Shows Fed Chief Rarely Shocks Stock Market
잭슨 홀 미팅 '대박' 없을 듯

-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이 오늘 예상되는 가운데;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. 역사가 증명하듯 잭슨홀 심포지엄 직후 증시 반응은 매번 미지근했기 때문이다.
- 실제로 2000년 이후 잭슨홀 연설 이후 일주일간 S&P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0.4%에 불과했으며, 이번에 옵션 시장도 커다란 변동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.
-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 완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아낄 가능성이 크다. 다만 예상 밖의 매파적 깜짝 발언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장세가 출렁일 여지는 남아있다.

기사

TheEconomist: Scott Bessent takes on the bond market
연방재무장관의 국채 매입 개입… 금리 상승 못 막는 3가지 이유

- 연방 재무부가 국채 매입(바이백)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. 이는 중간선거를 10여 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유가 상승 등 표심에 직결되는 생활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·시장 개입적 조치로 풀이된다.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계에 직면했다.
-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국채 공급 급증 때문이다. 미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6%에 달해 막대한 국채가 발행되면서 채권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.
- 둘째는 연방 정부의 이자 상환의 악순환이다. 즉, 적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빚의 이자로 나가는 구조로, '금리 상승 → 이자 증가 → 추가 국채 발행'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.
- 셋째로 시중 자금이 경색되고 있기 때문이다.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기업들의 AI 투자 자금 쏠림이 겹치며 시장 전체의 금리를 올려놓고 있다.
-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연준과 갈등을 빚고 있다.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연방 재무부의 개입주의 방식과 달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(QE)에 부정적이며, 물가안정(2% 목표)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. 연방재무부의 완화책과 연준의 긴축 기조가 충돌하는 양상이다.
- 부작용과 신뢰도 하락: 연방재무부의 발표 직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고 금값이 급등하는 등 미국 자산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이 커졌다. 연방재무부의 정치적 시장 개입이 누적될수록 미 국채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제기된다.



PHOTOGRAPH: THE ECONOMIST

기사

[중동 전쟁]

CNBC: Iran calls for global pushback against U.S. sanctions, says diplomacy 'isn't impossible'
이란 "국제 사회, 미국 제재 맞서야"... 대화 가능성엔 여지 남겨
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내걸며 국제사회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줄 것을 촉구했다.
- 이란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완화된다면 워싱턴과의 대화 재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.
- 한편 시장은 이란이 내건 해협 개방 조건과 원유 수송 상황에 예의 주시하면서, 오늘 금요일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.

기사

[오일]

YahooFinnace: Goldman Says Hormuz Oil Flows at Two-Thirds of Pre-War Levels
골드만 삭스 "호르무즈 원유 수송 전쟁 전의 3분의 2로 회복"

- 중동 전쟁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의 3분의 2 수준(하루 1,500만~1,600만 배럴)까지 회복됐다고 골드만삭스가 밝혔다. 3월 가장 낮은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.
- 위치 추적기를 끄고 몰래 운항하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몰래 옮겨 싣는 식의 위험을 무릅쓴 수송이 늘어난 덕분이라는 것.

- 이에 따라 지난 4월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던 유가는 최근 89달러 선으로 내려왔다. 골드만삭스는 분쟁이 길어져도 유가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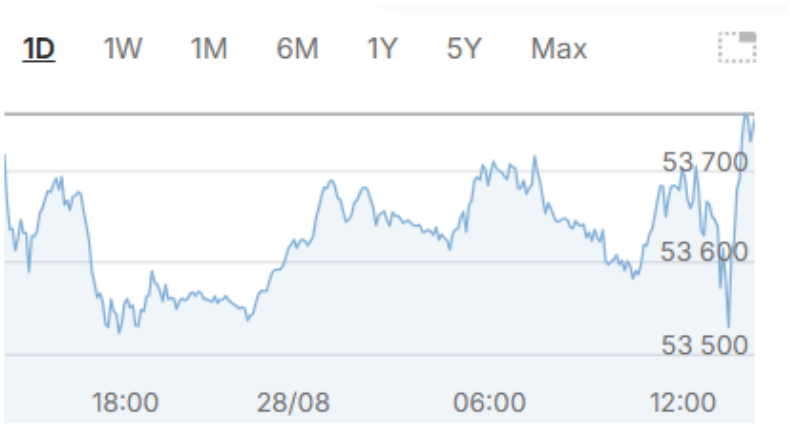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BYD Profit Rises for First Time in Five Quarters on Exports
중국 전기차 BYD, 수출 호조에 5분기 만에 반등

- 중국 전기차 업체 BYD(비야디)의 이익이 해외 수출 호조와 고급 차종 판매 증가에 힘입어 5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.
- 상반기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4% 급증한 1,813억 위안을 기록했다. 이는 전체 매출의 53%에 달하며, 해외 매출이 중국 국내 매출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- 증권가에서는 생산 차질이 해결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BYD의 실적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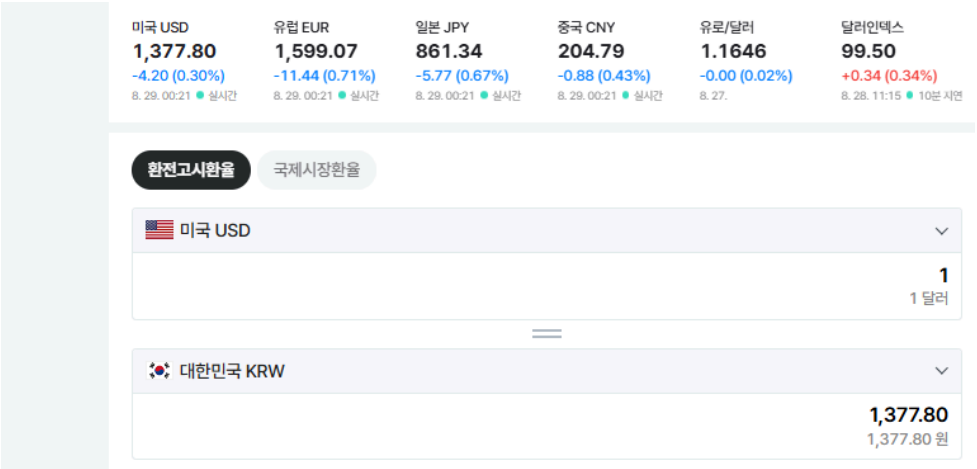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800.40	+231.8	+0.43%
US 500	7,767.00	+36.2	+0.47%
Dow Jones	53,765.73	+196.29	+0.37%
S&P 500	7,766.78	+35.99	+0.47%
Nasdaq	26,659.04	+117.69	+0.44%
S&P 500 VIX	14.25	-0.26	-1.79%
Dollar Index	99.458	+0.366	+0.3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24/32	5.182	-0.014
10-Year Note	4.625	-2/32	4.699	0.025
7-Year Note	4.5	-21/32	4.565	0.045
5-Year Note	4.375	-2/32	4.457	0.054
3-Year Note	4.25	-2/32	4.380	0.075
2-Year Note	4.125	-2/32	4.327	0.089
1-Year Bill	0	2/32	4.090	0.068
6-Month Bill	0	1/32	3.953	0.041
3-Month Bill	0	1/32	3.806	0.030
1-Month Bill	0	0/32	3.721	0.00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